



## 효강 종령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어



오늘은 인천의 위대한 스승님이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쁜 날입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새들이 맑은 소리로 부처님 오심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되새기며 지혜로서 슬기롭게 생활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의 절대적 진리는 인연법입니다. 내가 지은 것은 지은대로 받는 인과법입니다. 일체의 모든 인연은 내가 과거에, 전생에, 그리고 현재에 지어온 일체의 모든 행위들이 원인의 씨앗이 되어 때맞춰 과보

를 받는 것입니다. 인과는 누가 인연 지어 주는 것이 아니요,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입니다. 쉽게 내 뱀었던 말 한마디, 머리 굴려 줘야 짜낸 생각 하나 하나,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 하나 하나가 아주 적은 것이라도 숨겨짐이 없이 오늘의 현실을 만들어 냅니다.

어느 것 하나 우연은 없습니다. 내가 수 억겁을 윤회하며 많은 행위를 일으키고 오랜 세월동안 지어온 일체의 모든 업장은 고스란히 다 받게 됩니다. 선한 마음으로 일으킨 선업과 악한 마음으로 일으킨 악업으로 현실은 즐거움과 괴로움이 공존합니다.

부처님 오신날이 되면 우리는 부처님 전에 나쁜 일들은 부처님께서 다 거두어 주시고 늘 즐거운 일만 있게 해 달라고 서원합니다.

그러나 서원에 앞서 부처님 앞에서 '내가 지은 것 모두 내가 받겠습니다.' 하는 진심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일체의 즐거움도 괴로움도 모두 받아들이는 마음자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을 때는 선도 악도 모두 지어

놓고 받을 때가 되어서는 좋은 것만 받겠다고 하는 중생심을 버리고 괴로움, 즐거움 모두를 다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또한 우리 불자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지은 업을 다 없애고 앞으로 새로운 업을 짓지 않겠다고 비로자나 부처님께 지심으로 참회하여 업장을 소멸시키고, 삼밀관행 진언염송정진으로 즉신성불 해탈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모든 불자들이 인연법과 인과법을 깨쳐서 일제 모든 경계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 집착과 애집을 버리고 자신의 업을 지심으로 참회하여 소원하시느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비로자나 부처님께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총기 43년(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날

불교총지종 종령 효강 합장

## 불자들의 염원으로 부디 극락왕생 하소서 불기2558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봉행



▲ 봉축법요식 아기부처님 관육식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큰 아픔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여리고 깨끗한 생명들이 어둠에 갇혀 온 국민의 가슴과 나라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아픔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하나의 소중한 생명이 밝은 광명으로 나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며 연등회 봉축위원장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연등회 개회사로 세월호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위한 법회가 열렸다.

4월 26일 서울 동국대학교 운동장에는 총지종 총리원장 법등 정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진각종 총리원장 회정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등 주요종단 지도자와 김희옥 동국대 총장, 이기홍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주요종단 지도자와 단체장 및 사부대중 1만여 명의 연등회 개회사로 세월호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위한 법회가 열렸다.

전수경 독송으로 시작된 법회는 관불, 개회사, 기원문, 경전봉독, 발

원문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기존 식전 행사로 기획되었던 연희단 공연은 취소되고 공연을 준비한 단원들은 백색연등을 들고 희생자 영가의 극락왕생을 서원했다.

### 추모의 등으로 장엄한 연등행렬

오후 7시부터 흥인지문(동대문) 앞에서 시작된 연등 행렬은 오방번, 아기부처님, 세월호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대형 백등과 실종자 무사귀환을 염원하는 자색등을 선두로 석가모니불 정경으로 엄숙하고 장중한 분위기로 시작되었다. 백등 300여등을 들고 행진한 주요종단지도자들은 종각 회향 마당에 설치된 희생자 추모 법단에 헌화한 후 조계사 대웅전에서 연등회 회향 고불식을 진행했다.

연등 행렬이 마무리된 오후9시 종각 회향마당에서는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희망을 모으는 ‘세월호 아픔을 함께하는 국민 기원의 장’이 거행되었다. 연등행렬 참가 사부대중과 일반시민, 외국인들은 연등행렬이 끝난 후 영단이

마련된 보신각 특설무대 앞에 모여 마음을 모아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애도했다.

국민 기원의 장은 진명스님(전 조계종 문화부장)의 사회로 천도의식, 발원문, 음성공양, 기원등 밝히기 순으로 이어졌으며 천도의식은 조계종 의례위원장 인목스님의 집전으로 거불, 요잡바라, 청혼, 수위단, 진훈부, 화청, 정근이 진행됐다. 대학생불자연합회 박선연 양(성신여자대학교 3학년)이 봉독한 발원문에서 “세월호 참사는 저마다 자신의 이익을 중심에 두어 발생한 사건으로 우리는 이 사건 앞에서 모두 참회해야 한다”며 “부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저 깊고 어두운 바다 속에서 불안과 공포를 운뎠고 견디고 있을 아이들, 애통해하고 오열하는 가족들, 그들을 기다리며 울먹이는 친구들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라고 이변 사건으로 희생된 영가들이 편안히 극락왕생하기를 발원했다.

동국대,종로=김종열 기자.

## 법등 총리원장 봉축사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날입니다.

찬란한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신 부처님께서 연꽃처럼 맑은 향기와 대자대비하신 원력으로 무명의 어둠에 쌓여있는 중생을 구제하시고자 나투신

참으로 뜻 깊고 행복한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 불자들은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부처님의 불성과 자리이타의 등불을 밝히도록 합니다.

내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 나아가 일체 중생 모두가 부처님의 불성을 지니고 있는 고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지혜의 등불, 이웃과 사회를 위해 사랑과 봉사를 다짐 하는 원력의 등불, 불퇴전의 용맹 심으로 대자대비를 실천하기 위한 정진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중생은 부처입니다. 그러므로 고통받는 중생을 외면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억압한다면 대비구제의 큰 서원을 저버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다시한번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도록 나누어 가지는 마음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여 우리 불자들이 황폐하고 삭막 해져 가는 이 사회를 구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앞장 섭시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대자대비와 지혜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구원하는 자비의 등불을 함께 밝혀나갑시다.

성도합시다.

총기 43년(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날

불교총지종 총리원장 법 등 합장

## 새 종풍 운동으로

## 종단의 전기를 마련하자

### 제83회 춘계강공회 총지종 총리원에서 봉행

총기 43년 불교총지종 제 83회 춘계강공회가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총리원에서 봉행되었다. 전국의 기로스승을 비롯한 총지종 승단은 16일 오전 9시 30분 총지사 서원당에서 총무부장 인선정사의 집공으로 개강봉사를 봉행했다.

3.7 의례에 이어 불교 총지종 효강 종령 예하는 법어에서 “참석하신 여러 스승님들은 원정 대성사의 입교개종 정신을 되새겨, 중생구제의 목표를 반드시 이루려

는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수행자로서의 위와 모든 불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며 종조님 입교개종의 정신으로 진리를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강공을 통해 총지종이 한국 밀교의 중심이자 세계로 도약하기를 바랍니다.”며 강공에 임하는 스승들이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시력으로 강공 원만을 서원했다. 이어 효강 종령 예하의 특별 정신교육이 이어졌다. 이번 강공에는 밀교연구소 소

장 법경 정사의 “교상사상결집”, 중앙교육원장 화령 정사의 “관세음보살 42진수”, 김점란 교수의 “붓다와의 대화” 강의가 있었다. 강공회에 앞서 원의회, 유지재단 이사회, 사회복지법인 이사회가 연석으로 열려 중앙 총회에 상정할 안건들을 논의했다.

4월 15일 열린 중앙총회에서는 총기42년 결산서 심의, 유지재단 이사와 감사 추천, 지방사원 차량구매 건 등을 심의하였다.

###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시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움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보(弘布)합니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 불기2558년 부처님 오신날

세월호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실종자들의 구호 원만을 총지종 전 교도들과 함께 간절히 서원합니다.





# 불기2558년 주요종단 종정 봉축 법어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종 종정 법원 진제 대종사

대한불교 태고종



태고종 종정 혜초 대종사

대한불교 천태종



천태종 종정 도용 대종사

대한불교 진각종



진각종 총인 성초

친애하는 불자와 국민여러분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혜와 복덕을 다 갖추고 있다고 선언하신 날입니다. 모든 인간의 대자유와 대열반을 선언한 날입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일체 만물들에게도 대평화가 깃들어 있음을 선언하신 날입니다. 하늘은 축복을 노래하였고 땅은 진동으로 화답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웠으며, 보이지 않던 것을 바로 보게 하였으며, 치우친 생각을 바르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였으며, 한 뿌리임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웃의 아픔은 곧 내 아픔이고, 내가 평화롭게 위해서는 이웃을 평화롭게 해야 함을 깨우치게 하였습니다.

내가 존중 받기 위해서는 남을 먼저 존중해 주어야 하고, 내 가족이 보호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남의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아픔을 나누면 가벼워지고 행복을 나누면 두 배가 됩니다. 내 얼굴인 이웃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어떤 큰 아픔도 이겨내도록 이웃의 손을 함께 잡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부러워 할 만큼 짧은 시간에 부와 번영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성실한 국민들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고 쉽 없이 달려 왔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부강한 나라를 세웠으며, 이제는 경제를 넘어서 문화적으로도 다른 나라가 부러워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없으면 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감도 지키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물질이나 권력 앞에 생명의 가치는 땅에 떨어진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른 생각이나 바른 실천을 몰라주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는 미래가 밝지 못한 사회입니다. 우리는 예의와 도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민족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바른 생각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봄바람에 날리는 꽃 내음이 가득한 오늘은 부처님 오신날입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자 선각자이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천만불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봉축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시면서 “일체중생이 하나도 빠짐없이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신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 개개의 존재가 모두 존귀하며 모든 생명들이 차별 없는 절대 평등자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추구해온 무한한 물질의 가치는 생명경시의 풍조로 이어지고 전통적 가치관의 훼손과 함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역 · 계층 간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의 고통은 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는 생명의 존엄성에 기초하지 않은 문명의 발달과 자기중심적인 행복 추구는 결코 참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께서 진실로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웃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요, 일체 생명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 말씀하시고 완성된 지혜를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중생구제의 길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 전 이 세상 무엇도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부의 그물코처럼 서로 연결돼 있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정신적 가치의 바탕위에 인류가 함께 밝아야 할 큰 길을 만드셨습니다.

원력을 지닌 삶은 밝고 아름답습니다.

부처님께서 실로 평생을 나투신 대자대비의 현신과 일체중생의 제도는 온 세상을 안락하게 하기 위한 서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와 남이 둘이 아니요 우리와 그들이 다르지 않고 함께 하는 삶이 진실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이를 서원하고 실천할 때 세상은 더욱 맑고 밝아질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비록 자라는 곳이 진흙밭이지만 그곳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리고 중생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보살도 아프다는 비원(悲願)의 가르침처럼 청정한 마음과 차별 없는 자비가 온 세상에 두루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아픔인 세월호 여객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천만 불자와 국민 여러분 모두가 나누며 함께 하는 동체대비의 삶을 이루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불자와 국민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오신날, 만중생이 찬탄하고 환희해야 할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지금 참담한 마음을 가누며 연등을 밝히고, 진도해상 여객선 침몰사고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인천(人天)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서는 지혜로 상생하고 자비로 화합 하는 길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중생계의 대립과 갈등은 끝이 없어서 지구촌 곳곳에 기아와 질병, 전쟁의 공포가 가득합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 경제 불황도 여전합니다.

탐욕과 어리석음이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두었으니 육도윤회의 어둠은 한 순간도 멈춤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사고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해 깊은 위로와 희망의 등불을 밝혀드리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염원해야 합니다.

불자와 국민 여러분!

오늘 부처님오신날, 우리는 손에 손에 등불 밝혀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비춰봐야 합니다.

자성이 청정하여 중생이 곧 부처이며, 법계가 무궁하여 극락과 중생계가 따로 없음을 깨달아 현생정토 구현의 큰 서원을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연등하나 밝히는 공덕으로 사해인류가 평온하고 사람마다 가정마다 웃음꽃 피어날 것이니 부귀와 빈천의 벽도 허물어질 것입니다.

중생심에 등불 밝혀 부처의 눈 뜨고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은 억겁보살이요 곁에 있는 사람은 삼세제불의 현신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오신 부처님을 예경하고 찬탄 하며, 불의의 사고로 고통 받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하고 밝은 위로를 보냅니다.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불자님들 가정에 복과 지혜가 충만하고 이웃과 사회에 희망과 자비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삼라만상 모든 것이 진리요, 자비와 지혜이자, 무한한 성품, 그 자체임을,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가르침으로 이 땅에 전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주인이자, 부처임을 자주정신의 깨달음으로 전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자주정신으로 단지, 삼독을 단제하겠다는 수동적인 마음보다는 육바라밀을 실천하여 부처의 본심으로 진정한 해탈의 기쁨을 나누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본 마음으로 나눔의 보시를 실천하고, 자신의 행동과 습관을 절제할 줄 알며, 하심을 통해 인욕의 지혜를 배우고, 매사 최선을 다하는 열과 성의를 가지며, 바른 사유로 가치런찬 마음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삼라만상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볼 줄 아는 인과 이치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현 시대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도 이 인과 이치를 깨달은 지혜로 통찰해 마음속 깊은 어리석음을 밝히도록 참회합시다.

그래서 불교의 자주정신을 일상생활 속에 육행실천으로 옮겨,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상을 불국정토로 건설하겠다는 대 서원을 세워봅시다.

끝으로, 이번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분들과 아직도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을 유가족분들을 위해, 이 힘겨운 시간들을 무사히 이겨낼 수 있도록 불자님들 모두가 힘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희생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실종자 무사생환과 희생자분들 모두가 극락왕생성불하시길 간절히 서원합니다.

더불어 유가족분들에게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길 서원합니다.

인터넷 총지종보    www.chongjinews.com

#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눕니다

|       |     |      |        |
|-------|-----|------|--------|
| 개천사   | 이희권 | 3/26 | 10,000 |
| 개천사   | 무명씨 | 4/10 | 10,000 |
| 개천사   | 강순시 | 4/11 | 20,000 |
| 관성사   | 황성녀 | 4/1  | 10,000 |
| 관성사   | 인선  | 4/21 | 10,000 |
| 기로해정  |     | 3/26 | 20,000 |
| 기로대관  |     | 4/21 | 10,000 |
| 기로대자행 |     | 4/21 | 10,000 |
| 기로밀공정 |     | 4/21 | 10,000 |
| 기로법수원 |     | 4/21 | 10,000 |
| 기로법장화 |     | 4/21 | 10,000 |
| 기로법지원 |     | 4/21 | 10,000 |
| 기로불멸심 |     | 4/21 | 10,000 |
| 기로사홍화 |     | 4/21 | 10,000 |
| 기로상지화 |     | 4/21 | 10,000 |
| 기로수증원 |     | 4/21 | 10,000 |
| 기로총지화 |     | 4/21 | 10,000 |
| 기로선도원 |     | 4/21 | 10,000 |
| 단음사   | 법연지 | 4/16 | 10,000 |
| 밀인사   | 정정희 | 3/31 | 10,000 |

|        |     |      |        |
|--------|-----|------|--------|
| 밀인사    | 김종호 | 4/14 | 5,000  |
| 밀인사    | 무명씨 | 4/16 | 20,000 |
| 벽룡사    | 양정현 | 4/3  | 10,000 |
| 벽룡사    | 양지현 | 4/3  | 10,000 |
| 삼밀사    | 하명순 | 4/15 | 10,000 |
| 선립사    | 심지장 | 4/22 | 10,000 |
| 수인사    | 김봉기 | 3/26 | 10,000 |
| 수인사    | 무명씨 | 4/1  | 10,000 |
| 승천사    | 원봉  | 4/10 | 10,000 |
| 승천사    | 지선행 | 4/10 | 10,000 |
| 실보사    | 이순옥 | 3/26 | 10,000 |
| 실보사    | 조순애 | 4/23 | 10,000 |
| 실지사    | 정우석 | 3/27 | 60,000 |
| 일원어린이집 |     |      |        |
|        | 하재희 | 3/26 | 10,000 |
|        | 최복란 | 3/27 | 30,000 |
|        | 구미자 | 3/31 | 10,000 |
|        | 서선숙 | 4/22 | 10,000 |
|        | 이준동 | 4/25 | 10,000 |
|        | 김지연 | 4/25 | 10,000 |

|        |     |      |        |
|--------|-----|------|--------|
| 자석사    | 무명씨 | 4/15 | 10,000 |
| 정심사    | 원정언 | 3/26 | 20,000 |
| 지인사    | 승효제 | 4/10 | 30,000 |
| 지인사    | 지성  | 4/10 | 10,000 |
| 지인사    | 허성동 | 4/24 | 10,000 |
| 초록어린이집 |     |      |        |
|        | 오현주 | 3/31 | 30,000 |
|        | 이지은 | 4/1  | 10,000 |
|        | 박주원 | 4/6  | 10,000 |
|        | 황화성 | 4/25 | 10,000 |
|        | 이상은 | 4/25 | 30,000 |
| 총지사    | 법등  | 3/31 | 10,000 |
| 혜정사    | 박순희 | 3/28 | 30,000 |
| 혜정사    | 박순희 | 4/1  | 50,000 |
| 혜정사    | 장재은 | 4/17 | 10,000 |
| 혜정사    | 정은선 | 4/17 | 10,000 |
|        | 지성인 | 4/1  | 20,000 |
|        | 김갑선 | 4/21 | 10,000 |
|        | 현진영 | 4/10 | 20,000 |
| 화음사    | 강순란 | 3/28 | 10,000 |

|     |    |      |        |
|-----|----|------|--------|
| 흥국사 | 지정 | 4/21 | 10,000 |
|-----|----|------|--------|

## 3월26일부터 4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 총지중 세월호 애도문 발표 및 추모 합동 법회 봉행

총지중 통리원은 4월 17일 오전 10시 전국의 스승들이 모인 가운데 16일 발생한 진도 '세월호 침몰 희생자'와 실종자를 위한 법회를 봉행했다.

총지중 재무부장 우인 정사의 집공으로 열린 법회 총지중 정통의례에 따라 진행 되었다. 특별 서원사항으로 -세월호 희생자 영식왕생성불 사바하 -세월호 실종자 구호원만 사바하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희생 영가와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서원했다.

총지중 정통 밀교 정진법인 '옴마니반메훔' 정진으로 스승들은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속히 부모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비로자나 부처님 전 서원했다.

통리원장 법등 정사는 중단 공식 애도문에서 "조속한 구조작업으로 실종된 모든 사람이 구조 될 수 있도록 비로자나부처님께 지심 발원 합니다."며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중도를 대표해 서원했다.

### 공식애도문

애도문  
전남 진도 인근 해안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불교총지중의 모든 중도들은 마음속 깊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또한 조속한 구조작업으로 실종된 모든 사람이 구조될 수 있도록 비로자나부처님께 지심 발원합니다.

모든 불교도와 국민들께서는 구조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져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노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총기 43년(2014년) 4월 17일  
불교총지중 통리원장 법 등 합장

## 총지중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설치 교도 및 지역주민을 위한 추모의 장

불교총지중 통리원은 4월 26일 총지사 2층 중조전에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를 열었다.  
통리원은 총지중 교도 및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장소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  
통리원장 법등 정사는 "전 국민이 세월호 희생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희생

영가들의 극락왕생과 실종자들의 조속한 귀환을 서원하는 자리를 통리원에서 마련했습니다."며 분향소 설치의 의미를 밝혔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사, 봉은사 등 서울 시내 주요 사찰과 주요 중단이 분향소를 설치하여 조문객들을 받고 있다.



▲ 총지사 2층 중조전에 설치된 세월호 분향소

## 총지중 연등회 추모법회 자율 동참하기로 28일부터 일주일간 희생자와 실종자를 위한 불공

불교총지중은 4월 23일 집행부 및 서울 경인 지역 신정회(신도회) 간부들이 세월호 추모관련 긴급회의를 통리원 반야실에서 열었다.

총지중 집행부와 서울 경인 사원 신도 회자들은 세월호 추모 분위기를 고려하여 26일 동국대 운동장에서 열리는

연등제 세월호 추모법회에 자율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불교인들에게는 최고의 명절이지만 세월호 사고로 어린 학생들이 희생되었고, 실종자 수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예년과 같은 연등회의 동참은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서울·경인지역 총지중 사원과 산하기관은 추모 법회에 자율적으로 동참하고, 28일부터 7일간 시작되는 5월 월초불공 서원사항으로 세월호 희생자 영식 왕생성불과 실종자 무사 귀환을 위한 불공을 드리기로 결정했다.

통리원=장동욱 과장

## 신정회 서울·경인 지회 춘계강공 공양 지원 봉사



▲ 스승님 공양을 준비하는 서울·경인지회 회원

총지중 신정회 서울,경인 지회(지회장 만덕장)는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총지사에서 봉행된 제82회 춘계강공회 공양 지원 봉사를 펼쳤다.  
서울·경인 지회 각 사원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번 공양 지원은 강공에 동참하는 스승님들과 관계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강공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회장 만덕장(김은숙)보살은 "일 년에 두 번 전국의

스승님들이 교화발전과 종단의 미래를 논의하는 강공회를 개최합니다. 신정회 서울,경인 지회는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스승님들이 강공에 임할 수 있도록 사원 정결 작업과 공양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며 자원봉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지회는 이번 봉사 활동이 중단 내부 행사만이 아니라 외부 행사에도 지원이 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하기로 했다.

총지사=통신원 박정희

## 관성사 고(故) 김호면 각자 장남 김한조 외환은행장 취임

### 선대로부터 이어온 진엄염송의 공덕으로 시중 은행장에 취임



▲ 신임 외환은행장 김한조 각자

관성사의 오랜 교도인 고(故) 김호면 각자의 장남인 김한조 씨가 한국 외환은행장에 취임했다.

외환은행에 따르면 3월 21일 제25대 외환은행 김한조 행장의 취임식을 을지로 본점 대강당에서 거행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외환은행 경영진 및 본점 부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취임식에서 김한조

은행장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외환은행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한조 신임 외환은행장의 부친인 고(故) 김호면 각자는 관성사 설립 초기부터 진엄염송 수행 정진을 해온 교도이다. 열반에 들 때 까지도 하루도 진엄염송을 멈추지 않아 교도들의 모범이 되었다.

부친의 뒤를 이어 관성사에서 수행 정진 하는 김한조 외환은행장의 친남매인 김한옥 보살은 "선대로부터 총지중 원정 대사의 가르침을 받들어 진엄염송 정진으로 모든 가족이 평안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것 같습니다."며 김한조 외환은행장 취임은 부모님의 서원과 진엄염송 공덕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나타난 결과라 전했다.

이날 취임한 김한조 은행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연세 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 하였다. 1982년 외환은행에 입행 하여 32년 동안 외환은행에서 근무 하였다.

## 동해중학교 불교어머니회 정기법회 봉행 육자의례 강연 및 염주만들기 체험



▲ 동해중학교 불교어머니 반야회

중립동해중학교 불교어머니 모임인 『반야회』 (회장 조세미 (2-7반 윤호웅 군 모친))는 4월 29일 학교 서원당

「동해사」에서 법회를 열었다.  
동해중학교 정교 법선 정사의 집공으로 열린 법회에는 반야회 회원 20여명이 동참했다. 법선정사는 총지중 정통의례인 "육자의례"를 주제로 설법을 하여 다소 생소한 정통밀교 총지중의 교상과 사상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법회 후에는 염주만들기 체험에서 한알 한알 꿰어가는 염주를 통해 인욕과 하심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머니회 회원들은 서로의 진행 체험을 소개하며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는 좋은 도반이 되기를 서원했다.

동해중=김재근 선생님

# 부산 연등회 총지중 홍보부스 성황 단주 만들기, 다도체험, 팝콘 공양 등 다양한 체험 홍보 활동 전개

불기2558년 부처님 오신날



총지중 부산·경남교구 정각사(주교 록경 정사)는 4월 18일부터 26일까지 부산 용두산 공원 봉축 한마당에서 총지중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단주, 연등 만들기 체험, 무료 팝콘 공양, 다도체험, 총지중 교리 홍보 등 다양한 문화 한마당을 펼쳤다.

4월 20일에는 통리원장 법등 정사와 교정부장 원당 정사가 현장을 방문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신정회 부산,경남 지회장 신인록 회장에게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번 중단 홍보부스를 주관하고 운영한 정각사 주교 록경 정사는 "이번 홍보 행사를 통해 부산 시민들에게 정통 밀교종단 총지중을 알리고, 우리 종단의 진엄염송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며 홍보부스 설치 의의를 전했다.

다도체험 자원봉사에 나선 정각사 김경애 보살은 "이 곳에 오시는 모든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차 한잔하고,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모든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서원합니다."며 차 공양으로 대중들의 목마름이 조금이라도 가시기를 서원했다.

엄마와 함께 홍보부스를 찾은 김아름 양(9살, 동일초등학교 2학년)은 연등 만들기 체험을 하고 "오늘 노란 연등을 만들었어요. 진도 앞 바다에서 돌아가신 분들과 실종된 분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래요."라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정성껏 연등을 만들어 세월호 희생자들의 영가들에게 바쳤다.

부산 연등제 봉축 한마당 총지중 홍보부스는 연인원 약 10,000여 명이 다녀가 이번 연등축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스로 자리 잡았다.

부산=정각사통신원 이상록 / 성화사통신원 김경인



# 이 공양으로 세월호 실종자들이 무사 귀환 하기를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 만발공양



▲ 부산 용두산공원에서 봉행된 무차만발공양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이하 교류협) 여성부(회장 백명숙)는 4월 20일 부산 용두산 공원 광장에서 무차만발공양을 개최했다. 교류협 이사장 도산 스님(태고종 통리원장), 사무총장 법등 정사(총지종 통리원장), 상임이사 일면 스님(조계종 호계원장), 향운 스님(원효종 총무원장)과 여성부 회원과 자원봉사자 등이 동참 가운데 봉행되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교류협 여성부 백명숙 회장은“오방 중생들에게 공양을 베풀어 그 공덕으로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영가의 극락왕생과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서원합니다.”며 행사의 의미를 전했다. 이날 만발공양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부산의 관광 중심지인 용두산 공원을 찾는 어르신과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사찰 전통 비빔밥 약 3,000인분의 무료 공양하는 행사다.

부산 용두산 공원=김종열 기자

# 불기2558년 광화문 봉축 장엄물 점등식



▲ 불기 2558년 광화문 봉축 장엄물 점등식

불기2558년 부처님 오신날 연등회(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의 문을 여는 광화문 봉축 장엄물 점등식이 4월 16일 봉행되었다.

‘연등회보존위원회’와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 스님)’는 4월 16일 오후 7시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익산 ‘미륵사지’ 탑등 점등식을 봉행했다. 점등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총지종 통리원장 법등 정사,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김상범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 사부대중 1천여 명이 동참했다. 삼귀의와 한글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각 종단 대표가 봉축 장엄물의 점등 버튼을 눌렀다. 미륵사지 장엄등에 불이 들어오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펼쳐지기를 동참자 모두가 서원했다. 점등 후에는 각 종단 대표와 동참자들이 연등을 들고 광화문 광장을 3번 돌아 올해 부처님 오신 날에는 모두가 행복한 날이 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서원했다.

광화문 광장=김종열 기자

# 불교계 주요종단 세월호 추모 물결 이어져

팽목항 현장 태고종 임시법당 설치, 조계종 긴급구호 지원단 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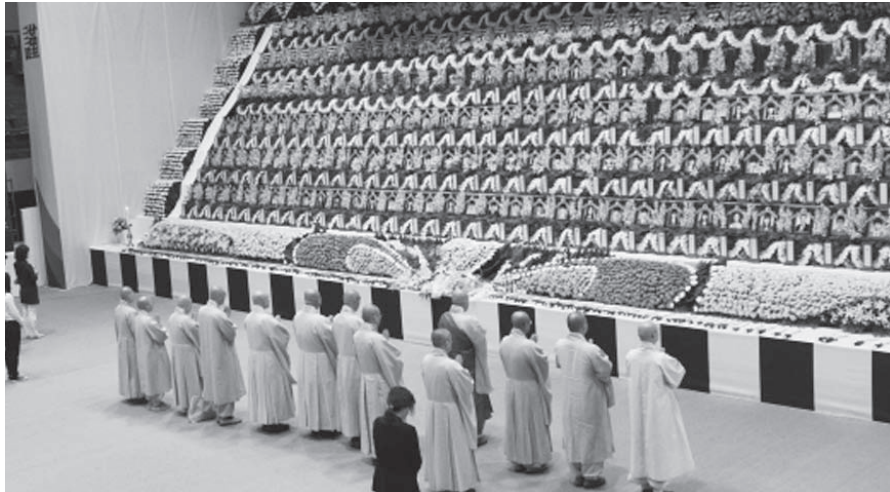
▲ 태고종 팽목항 임시법당(사진=성지스님)

불교계가 세월호 참사 현장에 임시 법당을 설치하고 긴급 구호 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영가전도와 구호 활동에 팔을 걷었다. 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세월호 침몰 참사 4 일째인 4월 19일, 사고 현장이 바라다 보이는 진도 팽목항에 이동식 천막 법당을 조성하고 실종자들의 무사 생환과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철야기도에 들어갔다. 천막 법당에서는 태고종 문사부장 성인스님(강릉 룡유사 주지)을 비롯해 총무원과 전국 각 지역의 총무원 및 산하 사찰의 스님들이 교대로 참여해 밤낮으로 기도를 간절하게 이어가고 있다.



▲ 진각종 안산심인당 강도불사

진각종 통리원(통리원장 회정 정사)은 4월 21일 오후 3시 안산심인당(주교 보성 정사·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08)에서 ‘세월호 실종자 무사생환 및 희생자 모두의 극락왕생성불을 서원하는 강도불사’를 봉행했다. 성초 종인, 통리원장 회정 정사, 교육원장 경당 정사, 총무부장 덕정 정사를 비롯한 서울교구 스승들과 안산 심인당 교도들이 동참 강도불사를 봉행했다.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법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또 일어났으며 사람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무분별한 행동들이 또 다시 참담한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우려 된다”며 “이럴수록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참회하고 바른 길로 인



▲ 조계종 집행부 안산 분향소 합동 참배

도하여 용맹으로서 수행,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진각종 복지재단을 통한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천태종 총무원(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총본산 구인사를 비롯한 전국의 말사에서 ‘희생자 극락왕생, 실종자 무사구조, 상해자 조속쾌유를 기원하는 특별불공’에 들어갔다.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17일 낮 전국의 말사에 긴급 협조공문을 보내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낀다”며 “부처님의 대자대비에 힘입어 한 사람이라도 더 생존하여 무사구조 되길 바라고, 상해자는 조속히 쾌유되고, 희생자들이 극락왕생하기를 발원하는 특별 불공을 봉행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한불교 천태종은 17일 오후부터 전국의 모든 사찰에서 촛불과 향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모든 법당에서 천태종의 기도법인 ‘관세음보살’ 주력정진을 이어갔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 스님) 조계종 긴급구호 지원단을 팽목항 현장에 파견하였다. 조계사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매일 사시불공에 희생자를 위한 영가 천도 법회를 봉행한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집행부 스님들은 4월 27일 일요일 오전 6시 20분, 세월호 희생자 임시 합동분향소인 안산올림픽기념관을 방문해 희생자들의 영정에 헌화하고 극락왕생을 위해 기도했다.

김종열 기자

## 불기2558년 부처님 오신날

관 성 사

주 교 : 정사 인 선  
전수 정 계 월  
☎ 02-736-0950

밀 인 사

주 교 : 정사 원 당  
전수 묘 심 해  
☎ 02-762-1412

법 천 사

주 교 : 정사 법 경  
전수 덕 현  
☎ 031-751-8685

벽 룡 사

주 교 : 정사 법 일  
전수 자 행 정  
☎ 02-889-0211

총 지 사

주 교 : 정사 법 등  
전수 인 덕 심

☎ 02-552-1080

실 지 사

주 교 : 정사 법 우  
전수 인 지 심  
☎ 02-983-1492

정 심 사

주 교 : 정사 화 령  
☎ 02-491-6888

지 인 사

주 교 : 정사 지 성  
전수 승 효 제  
☎ 032-528-2742

시 법 사

기초스승: 선 도 원  
☎ 032-522-7684



서울 · 경인 교구 일동



# 제7회 국제재가불교포럼



▲ 개막식 연설을 하는 법장원 김종인 박사



▲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염송정진



▲ 개막법회에 동참한 각국 대표들



▲ 한자리에 모인 국제재가불교 포럼 회원들



▲ 개막식 기초강연을 듣는 한국 대표단



▲ 참가자와 기념촬영



▲ 입정교성회 가와바타 다케시 이사장에게 선물 전달

불교총지중이 탄생시킨 제7회 국제재가불교포럼(International Lay Buddhist Forum: ILBF)이 일본의 세계적인 재가불교 종단인 입정교성회(立正佼成會) 본부 (토오쿄오)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총지중은 법등 통리원장을 비롯하여 포럼의 명예회장인 화령 교육원장, 포럼 운영위원회 위원장 보정, 그리고 총지중 교도들을 대표하여 그동안 ILBF의 활동을 후원해 온 김은숙(만덕장) 신정회 경인지회 회장이 참가하였다.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13개국 40여 대표들이 참석하여 각국의 재가불교 현황과 활동, 그리고 재가불교와 관련된 여타의 주제들을 놓고 열린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24일 열린 개회식에서는 법등 통리원장의 선도로 각국 참가자들과 함께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는 묵념과 왕생기원을 기원하는 '옴마니반메훔' 염송을 하였다. 개회식에서 마스히로 네모토(Masahiro Nemoto) 입정교성회 재단사무국 국제담당 이사는 입정교성회가 국제재가불교포럼을 개최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세계 평화를 위하여 다함께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실천하자고 하였다. 이에 대해 국제재가불교포럼을 대신 하여 보정 위원장은 입정교성회가 제7회 국제재가불교 포럼을 개최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말과 아울러 앞으로도 입정교성회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국제재가불교포럼에 참가하면 포럼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고 하였다.

개회식 직후에는 법등 통리원장과 화령 교육원장은 마스히로 네모토 이사와 만나 양 종단의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사무총장이기도 한 법등 통리원장은 입정교성회가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2015년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에 입정교성회가 참가할 수 있도록 초청하겠다고 하였다. 입정교성회는 일본불교협회에 입정교성회도 참가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인데, 법등 통리원장이 2015년 대회에 입정교성회를 초청하면 입정교성회의 정식 참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등 통리원장은 또 양 종단이 국제재가불교포럼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인 지원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으며, 마스히로 네모토 이사는 이에 좋은 생각이라고 화답하였다.

대회 셋째날에는 입정교성회 국제연맹(International Buddhist Congress'IBC) 주관의 하나 마쓰리(꽃 축제)에 참여하였다. 600여명의 회원들로 성황을 이룬 행사장에서 ILBF 참가자들은 일본의 전통 음악과 궁중무용을 감상했으며, IBC회원들과 국제재가불교포럼 회원들은 화기애애한 가운데에 친분을 나누었다.

넷째날과 다섯째날은 일본동경박물관과 가마쿠라의 문화유적들을 돌아보면서 일본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대회 마지막 날에는 입정교성회 이사장인 다케시 가와바타 씨가 마련한 송별만찬회에서 국제재가불교포럼의 자문위원단 결성과 위원단이 소개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은숙 신정회 회장은 종단에서 마련한 기념품인 관세음보살 족자를 이사장에게 전달하는 등 각국 참가자들 간의 선물 교환과 사진촬영을 하면서 상호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였다. 다음 대회는 부탄이나 대만, 네팔 등에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개최될 예정이다.

##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날

### 정각사

주 교: 정사 룡 경  
전수 범수연  
전수 묘 흥

☎ 051-552-7901

### 관음사

주 교: 전수 정인화  
☎ 051-896-1578

### 단향사

기토스승: 경 원  
☎ 055-644-5375

### 덕화사

주 교: 정사 시 정  
전수 원만원  
☎ 051-332-8903

### 밀행사

주 교: 전수 금강륜  
☎ 055-354-3387

### 법성사

주 교: 정사 혜 광  
☎ 051-468-7164

### 삼밀사

주 교: 정사 서 령  
전수 해원정  
☎ 051-416-9835

### 성화사

주 교: 전수 수심정  
기토스승 지 광  
☎ 051-254-5134

### 실보사

주 교: 정사 덕 광  
전수 보 현  
☎ 052-244-7760

### 운천사

주 교: 전수 정원심  
☎ 055-223-2021

### 일상사

기토스승: 수 행 월  
☎ 055-352-8132

### 자석사

주 교: 전수 법상인  
☎ 051-752-1892

### 화음사

주 교: 정사 수 현  
전수 자심관  
☎ 055-755-4697



부산 · 경남 교구 일동





# 부처님 자비광명으로 이 아픔을 치



##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사진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 전화문의 \_ 불교총지중 통리원 02) 552-1080  
각 사찰 주교님께 문의하셔도 구입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_ 우리은행 1005-480-047811  
(제) 불교총지중 유지재단

### 1. 만다라 세트 (금강계 만다라 + 태장경 만다라) 33cm X 33cm (액자포함) 30,000원



태장경 만다라 \_ 服藏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정확하게는  
'대비 태장생 만다라'이다.  
대일경에 근거해 그려진 이 만다라는  
태아가 모태 속에서 생육되어 가는 것에 비유해  
대일여래의 보리심이 모든 생물의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금강계 만다라 \_ 金剛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서만다라고도 하는  
이 만다라는 '금강정경'에 근거해 그려졌다.  
중생의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 2. 가정다라니 46cm X 27cm (액자포함) 27,000원



가정다라니



# 유 하소서! 불기 2558년 봉축 연등회



##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날



원대한 꿈을 갖고  
실력을 연마하는  
충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충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법천사 주교)

밀교연재 깨달음의 세계 · 불보살의 도량,  
법경정사의 만다라 이야기 (3)

## 만다라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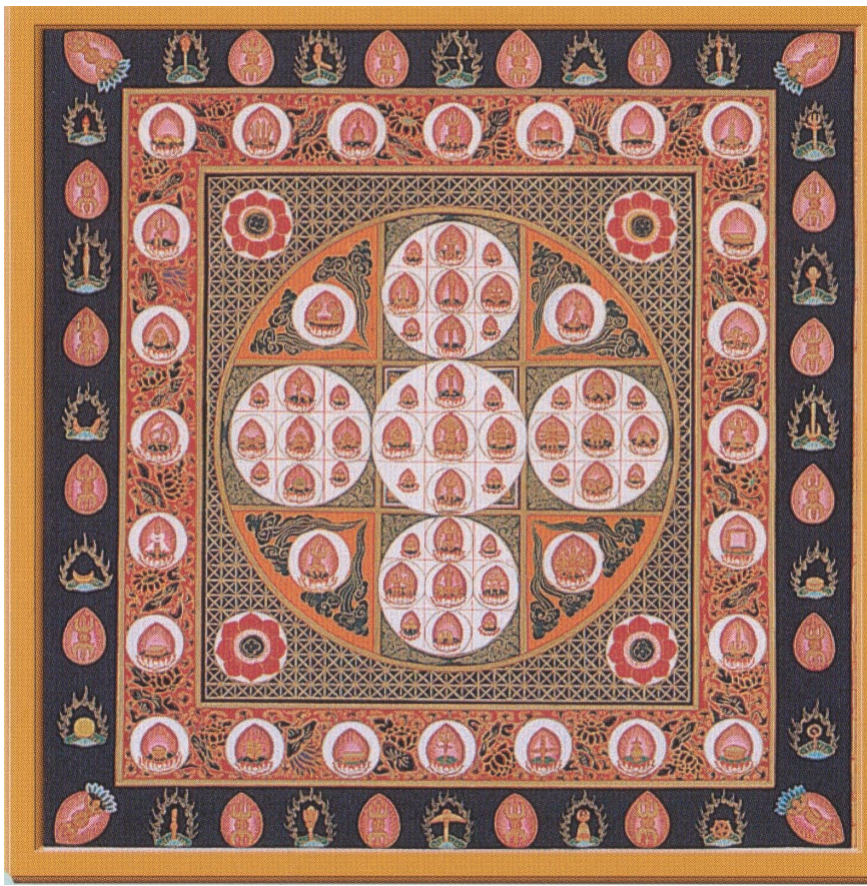
만다라는 분류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자성만다라(自性曼荼羅)·관상만다라(觀想曼荼羅)·형상만다라(形像曼荼羅)의 세 가지로 대별된다.

자성만다라(自性曼荼羅)는 불(佛)의 깨달음 그자체를 말한다. 깨달음의 세계가 곧 자성만다라이다. 즉 우주 삼라만상의 현상과 진리의 세계를 그대로 만다라로 보는 것을 자성만다라(自性曼荼羅)라 한다.

관상만다라(觀想曼荼羅)는 수행자가 자심(自心)에 이 자성만다라를 관상하는 것을 말한다. 즉 행자의 마음에 반영된 만다라를 관상만다라라 한다. 이 관상만다라를 그림 으로 나타내어 채색한 것을 도회만다라(圖繪曼荼羅)라 한다. 태장계·금강계만다라 등이 도회만다라에 속한다.

즉 불보살을 그림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말한다. 또한 도회만다라를 관법의 대상으로 삼아 관하는 것도 관상만다라(觀想曼荼羅)라고 한다. 이 관상만다라는 먼저 종자를 관하고, 다음에 삼매야형을 관하며 마지막으로 존형(尊形)을 관하는 것으로, 행자는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치며 관상한다.

관상만다라는 밀교수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관상 만다라(觀想曼荼羅)는 예배나 수행을 위한 대상으로 모셔놓은 만다라를 말하기도 하고,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여 불보살의 세계를 머리에 떠올리며 삼마지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 관상의 대상이 바로 형상만다라(形像曼荼羅)이다. 그래서 관상만다라를 수행상의 만다라라 한다.



▲ 금강계만다라 삼매야회 : 불보살의 대서원을 갖가지 문양들로 나타내었다.

존상(尊像)을 그려 놓은 만다라라 하여 존형만다라(尊形曼荼羅)·존상만다라(尊像曼荼羅)라고도 한다.

삼매야만다라는 불보살과 제존(諸尊)이 지니고 있는 물건이나 손의 모양 등을 그림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말하는 것으로, 금강계만다라의 구회(九會) 가운데 삼매야회(三昧耶會), 향삼세삼매야회(降三世三昧耶會)가 여기에 해당한다.

삼매야(samaya, 三昧耶)란 약속(約束)·서약(誓約)의 의미로서 모든 불보살의 서원(誓願)을 말한다. 그 서원을 상징하는 물건이나 손모양을 통틀어서 삼매야형(三昧耶形) 이라 하며, 대개 칼이나 보주(寶珠), 금강저(金剛杵), 연화(蓮華) 등이 배치된다. 총지종의 서원당 본존(本尊)의 좌우에 양부만다라가 있고 양부만다라 앞에는 불단(佛壇)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불단 아래에 세겨 놓은 문양들이 바로 삼매야형(三昧耶形)이다. 관음보살이 연꽃을 지니고 있는 것은 대자대비(大慈大悲)로써 중생을 구제하며 더러움에 물들지 않음을 상징하고, 문수보살의 칼은 대지혜(大智慧)를 나타내며 범부중생의 어리석음을 끊어 없애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불보살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수인(手印)이 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바, 이를 삼매야라 하는 것이다. 즉 삼매야는 불보살과 명왕·천왕 등이 지니고 있는 지물(持物)로써 제존(諸尊)의 덕성(德性)과 공능(功能)을 상징하며 손모양은 제존(諸尊)의 존격(尊格)을 나타낸다. 이러한 표현은 밀교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밀교의 상징성(象徵性)과 심비성(深秘性)을 나타낸다.

법만다라(法曼荼羅)는 불보살 등의 진언종자를 그림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말하는 것으로, 총지종의 본존(本尊)이 여기에 해당한다. 문자와 진언종자로 만들어진 본존 또한 일종의 만다라이며, 이는 사중만다라 가운데 법만다라에 속한다. 진언종자와 문자를 그려 놓은 만다라이므로 이를 종자만다라(種子曼荼羅), 문자만다라(文字曼荼羅)라고도 한다.

갈마만다라(羯磨曼荼羅)는 불보살의 역할과 동작을 나타낸 것으로 불(佛)의 삼밀(三密)이 여기에 해당한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갈마는 범어 karma를 음사한 것으로 '행위'라는 의미다. 모든 불보살의 신체적인 동작(動作)과 위의(威儀)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로 불(佛)의 삼밀을 의미한다. 불(佛)의 삼밀 뿐만 아니라 중생의 신구의(身口意) 삼밀까지도 포함하며, 더 나아가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작용과 활동을 갈마(羯磨) 라 한다. 그러므로 온 우주가 갈마만다라(羯磨曼荼羅)인 셈이다. 그래서 입체만다라(立體曼荼羅)라고도 한다.

이 만다라는 형상이 있는 앞의 삼중(三種)의 만다라와 달리 형상이 없는 무형(無形)의 만다라까지도 모두 포함한다. 즉 내가 말하고 행동하며 생각하는 일체의 작용이 모두 갈마만다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유무형의 작용이 모두 갈마만다라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업(業)이 곧 만다라이며, 내가 업을 잘 지으면 곧 불보살의 세계가 되고, 잘못 지으면 지옥의 세계가 된다. 따라서 나의 삼밀작용이 진실한 갈마만다라를 이룰 때 그것이 바로 즉신성불(即身成佛)을 이루는 것이 된다.

이상 네 종류의 만다라는 우주 삼라만상의 모습을 여러 측면에서 바라 본 것인데, 이를 나누면 넷이 되고 모으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 사중만다라(四種曼荼羅)는 결국 하나의 만다라를 이루는 것으로 불(佛)과 중생(衆生)의 일체를 의미한다. 그 일체는 바로 신구의(身口意) 삼밀(三密)로써 가능하다. 그래서 『비장기(秘藏記)』에서 '만다라는 삼밀원만구족(三密圓滿具足)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즉 중생의 삼밀이 사중만다라 (四種曼荼羅)라는 말인데, 이는 수행자의 몸(身)과 입(口)과 뜻(意)의 세 가지 활동에 사중만다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행자는 손으로 결인을 맺는데[身密] 이것이 갈마 만다라이고, 입으로 진언이나 종자를 외우는데[口密] 이것이 법만다라이며, 마음에 모든 불보살의 서원을 생각하는데[意密] 이것이 삼매야만다라이며, 이 삼밀을 통해 구경(究竟)에는 부처와 하나가 되는 삼삼평등(三三平等)의 삼밀가치(三密加持), 삼밀상응(三密相應)의 대만다라(大曼荼羅)가 완성된다는 것이다. 부처와 중생의 삼밀이 하나가 된다는 경지다.

이와 같은 신구의(身口意)의 삼밀을 삼밀유가, 유가삼밀 이라 하며, 그것을 원만하게 구족하는 것이 바로 만다라이다. 그러므로 수행을 통하여 완성되는 내 자신이 곧 만다라이며, 당신도 만다라이고, 우리 모두가 만다라인 것이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그림으로 된 현도만다라(現圖曼荼羅)를 의지하여 이를 관상하고[觀想曼荼羅], 신구의 삼밀행을 닦아서[四種曼荼羅]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다음호에서 '만다라의 존상(尊像)'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왜 천도불공을 올려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상장례와 49재의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서 방 정 토 극 락 왕 생 을 위 한 천 도 불 공 안 내 서 !

## 서방정토 극락왕생을 위한 상장례 및 49재 천도불공



- \* 임종 시에 불공을 해드려야 하는 이유
- \* 재(齋)란 무엇인가?
- \* 49재의 의미, 유래와 근거
- \* 49재를 행하는 이유
- \* 49재는 어떻게 행하는가? (절차와 방법)



법공 종사 · 법경 대정사 共著  
불교총지중 밀교연구소 발행/ 비매품/ 59쪽  
구입문의 : (02) 552-1080~3



동방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

## 제3회 학술 발표회 지상 중계 “우리 그림과 불교 미학의 만남”

동방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는 4월 23일 “우리 그림과 불교 미학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제3회 학술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한국의 회화 속에서 녹아있는 불교적 사상의 저변을 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도상학에 치우친 미술사가(美術史家)들의 오류를 바로잡고, 부처님 경전을 중심으로 한 회화 작품의 해석을 시도하는 학술 발표가 있었다.

기조강연으로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홍윤식 박사가 “한국불교미술의 특징과 그 미의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제로는 한국종합예술학교 강사 지미령 박사가 “고려 수월 관음도에 나타난 불교적 미학

의 세계”를 발표하고 전 대전 시립 미술관장 김영재 박사가 논평을 하였다. 미술평론가 조정욱 선생은 “단원 김홍도 화폭에 나타난 불교적 미학의 세계”를 발표하고, 이화여대 유옥경 박사가 논평을 했다. 동방대학원 대학교 백원기 교수가 “추사의 ‘세한도’에 나타난 불교적 미학의 세계”를 발표하고 같은 대학 이영철 박사가 논평했다. 마지막으로 동국대 강의교수 진문철 박사가 “장욱진의 화폭에 나타난 불교적 미학의 세계”를 발표하고 원광대학교 선조형예술학과 윤양호 교수가 논평하였다. 이번호에는 홍윤식 박사의 “한국불교미술의 특징과 그 미의식”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한국불교미술의 특징과 그 미의식”  
홍윤식(문학박사,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 1. 불교예술의 근원은 장엄으로부터 시작

필자가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불교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절에서 거행하는 장엄한 의식이 필자 마음을 움직였다. 사원을 장식하는 단청이나 벽화, 근엄한 불상과 불화 그리고 의식을 행할 때 들리는 종소리, 염불소리는 아름답고 경이로운 마음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제요소를 장엄(莊嚴)이라 한다. 현대적인 용어로 불교예술, 불교미술, 불교음악 등으로 표현하지만 불교경전에는 이러한 용어는 없다. 오로지 극락정토는 여러 모습으로 장엄되어있다 라고 종합적으로 표현된다. 불교미술의 미학적 고찰을 전제로 한다면 장엄에 대한 의미를 종합적으로 깊이 고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엄에 대한 고찰은 오늘날 불교미술 연구의 방법론이 양식주의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그 내용을 모르고 불교 미학적인 토대 없이 새로운 창조적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 2. 불교를 구성하는 요소

불교를 접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불교가 학문적이고 지적이며 과학적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그것은 원시불교로부터 시작된 지적인 경향 덕분이다. 후세에 발달한 대승불교는 지적인 동시에 정적경향(情的傾向)도 많이 나타난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원시불교나 대승불교가 다 같이 수행방법으로 삼는 계(戒), 정(定), 혜(慧) 3학을 수행 덕목으로 하는 것은 불교가 지적 종교만이 아니라 정적인 요소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도 불교를 미학적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요소다.

한편 불교의 사회적 현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원과 신도의 조직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불교가 하나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표현하는 현상이다.

오늘날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연등회’등도 불교의 사회적 활동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도 정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어 관심을 끈다.

또한 불교는 신비적 경험이란 것을 얻을 수 없다. 불교는 의식적, 지적, 사회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불교가 종교적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어렵다. 신비적 감정이 없이는 종교적 기능을 충분히 다 할 수 없다. 즉 불교의 신비적 본질이 내포되어 있음에 의하여 살아있는 종교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비라는 경험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적 본질이 내포되어 있다. 예컨대 경이로움, 공포, 신뢰, 희망의 감정 등이 신비적 감정 속에 배태된다.

일반적으로 불교는 지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철학이라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외에도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를 감정적 요소라 해도 무방하다. 불교는 안심입명(安心立命) 또는 전미개오(轉迷開悟)라는 말을 잘 쓴다. 그러나 이들 속에 내포된 감정분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는 희망, 신임, 경이 그리고 자비라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뿐 아니라 환희의 마음 법悅(法悅)이란 것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러한 감정은 입으로 말 하기는 어려우나 종교의 진리를 조립하고 있는 정적요소(情的要素)인 것이다.

### 3. 불교적 의식의 표현이 불교 예술이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불교미술은 불교의식의 소산이라 한데 기인하여 불교의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한다.

불교의식이란 불교적 감정의 외적 발현이라 할 수 있다. 즉 안에서 밖으로의 표현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표현이라 한 것이 다시 밖에서 안으로 마음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

불교의식이란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없어서도 괜찮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마음이 통하면 외부는 어떤 것이더라도 무관하다고 생각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 인간이라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표현형식이 없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고 할 정도로 표현이라는 것과 경험과의 관계가 밀접한 것이다.

표현이란 것을 빠뜨리면 안 된다. 무엇인가 그 마음속에 움직임이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밖으로 나타나게 된다. 밖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완전히 느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감정, 의식 등의 마음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 상응의 표현이란 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표현이 있고서 비로소 그 마음이 완전하게 움직인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문장을 쓸 때 그 표현이 잘 되지 않는다면 혹은 음악을 하더라도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느낌이 아직 완전하지 못한 것이다.

오늘 날 한국 불교는 외부적 표현으로서 불교의식이나 문화 행사에 관심을 집중하고 그를 발전시키려 하고 있음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를 있게 한 정신적 내용까지 이해하려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를 일이다.

왜냐하면 불교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참된 마음을 지니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를 의식화된 표현을 통해 오늘날의 살아있는 불교와 만날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한편 생각하면 단순한 하나의 형식을 따르는 폐해를 생각 할 수 있다.

즉 내용보다는 표현 이라는 데 너무 무게를 두고 그 표현의식이라는 것이 형식에 치우쳐 아무런 의미를 찾아 볼 수 없게 되리라 생각한다. 이는 전통이라는 것에 수반되는 폐해인 것이다.

이다. 여기서 전통이 갖는 폐해를 다시 되 돌아볼 필요를 느끼게 한다. 그렇게 되면 전통적인 불교의식에 새로운 힘을 불어 넣게 된다.

그 새로운 것이 지금까지 경험한 역사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한다면, 그 역사에 나타나 살아온 정신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불교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는데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는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요컨대 형식이 형식에 그치고 만다면 큰 결함이 생긴다. 한편 마음의 움직임은 마음속에 그치지 말고 형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참된 마음의 힘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표현 형식이란 것과 표현의 정신이란 양면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4. 경전을 근거로 한 종합적인 불교 미술의 연구가 필요하다.

불교의식의 소산으로 표현되어진 것을 장엄이라 한다. 이 장엄이란 가치는 미학의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미학의 연구는 미진한 상태다. 미술사 연구는 표현의 형식에만 치중되어 표현의 정신에 대한 연구가 부진하다. 그러면 이 장엄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장엄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경전은 ‘무량수경’이다. 경전에는 부처님의 얼굴과 신체에 대한 표현과 극락정토의 장엄한 모습은 우리들로 하여금 심미감(審美感)을 불러일으킨다.

요컨대 불교 경전상의 정적인 요소는 장엄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선종은 지적인 종교라 하지만 여기서도 정적 요소가 있어 선적 표현이 있게 되는 것이다.

한국 불교미술은 정토교적 장엄, 밀교적 장엄, 선종적 장엄 등이 기본이 되어 이들이 상호 작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 장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한국 불교미술의 형식과 내용을 동시에 이해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날

### 전화사

주 교: 정사 법 상  
전수 정 원  
☎ 054-761-2466

### 개천사

주 교: 정사 우 인  
전수 보 명 심  
☎ 053-425-7910

### 국광사

주 교: 전수 혜 안 정  
☎ 054-772-8776

### 단음사

주 교: 정사 도 우  
전수 지 현  
☎ 054-333-0526

### 선립사

기로스승: 보 원  
심 지 장  
☎ 054-261-0310

### 수계사

기로스승: 안 주 화  
☎ 054-745-5207

### 수인사

주 교: 정사 안 성  
전수 유 가 해  
☎ 054-247-7613

### 승천사

기로스승: 원 봉  
지 선 행  
☎ 054-746-7434

### 제석사

주 교: 전수 행 원 심  
☎ 053-743-9812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



대구·경북 교구 일동



다시 **우리시조** 읽는

살구꽃 핀 마을

지은이: 이호우(李鎬雨)



대표적인 시조시인 이호우의 목가적이고 서정 시조다. 예스런 어투가 더 정감 있게 들린다. 옛날 시골에서는 모두가 알고 지냈다. 누구네 집을 들어가도 다 알고 반겨 맞던 기억을 떠올린다. 이것은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아쉬움을 저변에 깔고 있다.

두 번째 연에서도 그런 아늑한 달밤의 한가한

살구꽃 핀 마을 은 어디나 고행 같다.  
만나는 사람마다 등이라도 치고치고,  
늪집을 들어서면은 반겨 아니 맞으리.

바람 없는 밤을 꽃 그늘에 달이 오면  
술익는 초당(草堂)만 정이 더욱 익으리니  
나그네 저무는 날에도 마음 아니 바쁘라.

정경을 그려낸다. 이제 더는 그런 정겨움을 누리 지 못하고 사는 지금의 우리 모습과 대조되어 그 의미가 커진다.

살구꽃, 고행, 달밤, 반가운 사람과의 술 한잔 등 시어 하나하나 마다 생활에 지쳐가는 현대인들의 꿈을 대신 표현해 준다.

편집·정리 = 편집위원회

유 물 로 보 는 **비로자나불**



▲ 제565호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제565호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平澤 深福寺 石造毘盧遮那佛坐像)

소재지: 경기 평택시 현덕면 덕목5길 47-24, 심복사(덕목리)  
시 대: 통일신라

심복사 능인전 안에 모셔진 이 불상은 고려말에 파주 군 몽산포에 살던 천노인(千老人)이 덕목리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것이라고 전한다. 불상 모실 곳을 찾아 옮기던 중 광덕산에 있는 지금의 심복사 자리에 이르자 갑자기 무거워졌으므로 여기에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머리에는 작은 소라 모양의 머리칼을 붙여 놓았으며 그 위에 있는 상투 모양의 머리(육계)는 낮게 표현되어 있다. 둥글고 원만한 얼굴에 귀가 크고 짧은 목에는 삼도(三道)의 표현이 뚜렷하다. 옷은 양 어깨를 감싸고 있으며, 옷깃과 소매에는 꽃무늬가 새겨져 있다. 배부분에는 안에 입은 옷을 묶은 띠매듭이 있는데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으며, 옷주름은 규칙적인 계단식 선들로 나타내어 단조롭고 형식적이다. 대좌(臺座)는 상·중·하대로 구성되어 있다. 상대는 16개의 연꽃무늬가 겹쳐서 새겨져 있고, 중대는 두 마리의 사자가 앞발을 들어 상대를 받치고 있는 모습이다. 하대는 8개의 겹잎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다.

다소 둔중해진 느낌이 있지만 안정되고 단정한 모습이 이 불상은 전체적인 조형이 도식화된 것으로 보아 10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제공=문화재청

**VISUAL**  
**불교충전**

제59화

현명한 숲장수

글/그림 정수일

<http://www.drawing라홀라.kr>

어리석은 숲장수

좋은 목재 구하기가 힘들구나.

찾! 저건 굉장한 나무다.

시장에 내다팔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겠다.

에휴! 사람들이 나무를 몰라보다니.

숲 사시오! 숲을 사~!

맛다! 차라리 숲으로 구워 파는 게 훨씬 이익이겠다.

으쌔! 으쌔!

이건 굉장히 희귀한 목재가 아닌가?

숲은 다른 나무로 구워 팔고 이 나무는 비싸게 팔자.

오랫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군.

그 나무를 사고싶소.

다 팔았군. 닳냥이나 벌었어.

귀한 나무를 판다는 소문을 들었소. 내가 사라다.

정말 좋은 목재야!

숲을 몇 년 구워 판 것 보다 더 많이 벌었다.

크허! 처, 천냥?

쫄쫄! 속이 까만 숲덩이가 되었겠군.

내용참조: “불교충전” 자기에 대한 덕의편 282p-283P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날**

| 만 보 사                  | 백 월 사          | 법 황 사                  | 혜 정 사          | 흥 국 사          |
|------------------------|----------------|------------------------|----------------|----------------|
| 주 교 : 정사 승 원<br>전수 묘원화 | 주 교 : 전수 환수원   | 주 교 : 정사 도 현<br>전수 자인행 | 주 교 : 전수 진일심   | 주 교 : 정사 지 정   |
| ☎ 042-255-7919         | ☎ 042-527-5470 | ☎ 062-676-0744         | ☎ 043-256-3813 | ☎ 063-224-4358 |



제83회 춘기 강공회 강의

## 교상(敎相)과 사상(事相)의 결집(結集)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법천사 주교)



▶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상수 제자 마하가섭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파악해 놓지 않으면 정법(正法)이 무너지고 비법(非法)이 난무할 것을 염려하였다. 이리하여 마하가섭은 정법정음(正法正律)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6개월여가 지난 다음 해 여름, 마하가섭

은 왕사성 밖의 칠엽굴에 500명의 비구들을 모아 놓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정리작업을 거행하였다. 이를 '결집(結集)'이라고 한다. 이때의 결집을 '제1결집'이라고 한다. 결집은 모두 네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이때의 결집이 제일 처음 이루어졌으므로 '제1결집'이라 하는 것이다. 이를 달리 '오백결집(五百結集)'이라고도 한다. 500명의 비구가 모여 거행되었으므로 '오백결집'이라 한 것이다. 이때에 거행된 결집은 부처님의 말씀과 계율에 관한 내용이었다. 다문제일(多聞第一)의 제자 아난이 부처님의 말씀을 대중 앞에서 읊으면 대중이 점검하는 작업을 거쳤고, 또 지계제일(持戒第一)의 제자 우발리가 율(律)을 읊어가면 대중이 하나씩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경(經)이 마련되었고 율(律)이 정리되었다. 아직 문자화되지 않았고 순전히 암송에 의해 이루어졌던 경(經)과 율(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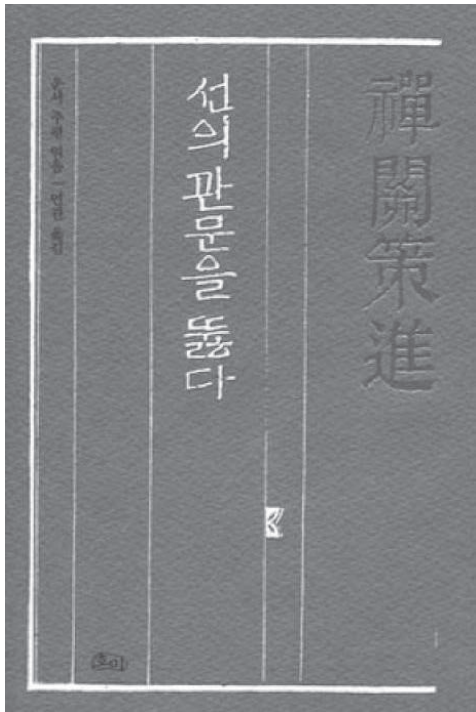
▶ 결집은 부처님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의 중단도 이러한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총지종이 창종된지 43년이 흘렀다. 작금에 창종 당시의 원로 스승님은 거의 열반에 드셨고 원로스승님을 또한 얼마 계시지도 않는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총지종의 교상(敎相)과 사상(事相)에 대한 정비 작업을 빨리 서둘러야 한다.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은 통일시켜야 하고, 표준안도 마련돼야 한다. 교상은 교리적인 부분이고, 사상(事相)은

의식과 수행법, 교화방편 등이다. 결집 작업의 일환으로 먼저 '의식(儀式)'에 대한 정비를 제안하는 바이다. 일부분만 소개한다.

▶ 결집의 주요골자는 '상장례 및 49재 천도불사의 엄불식 독송법' '입관불공(入官佛供)과 하관불공(下官佛供)의 집공과 법구(法具)' '죽비치는 법' '죽비치는 횃수' '정사와 전수의 호칭과 의미' '대중불사의 명칭' '공공서원의 명칭' '대중불공과 향마염송법' '람자관의 타종과 소요시간' '본존의 훈향정공과 합장례, 희사심고법' '홀자오인의 방법과 절인을 푸는 법' '염송 중의 언행' '세불공과 축원불공' '세불공 시의 발원문과 법문 독송법, 합장례' '49재 시 사회자의 허용' '가지토(加持土)의 방편' '법의(法衣) 임의 변형 금지' '지권인(智拳印)의 통일' '사중법의 종자관(種子觀) 시행' '준제진언과 광명진언다라니의 불ان 기본' 등이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식 공문으로 전달하기로 한다.

▶ 의식에 있어서 장엄도 필요하지만 정성(精誠)이 더욱 중요하다. 장시라도 의식(意識)하지 않으면 의식(儀式)은 허식(虛飾)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의식(儀式)은 의식(意識)이다. 이 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는, 수행자의 필독서 〈선의 관문을 뚫다 禪關策進〉



중생번뇌가 8만4천 가지기 때문에 방편 또한 8만 4천 가지라고 합니다. 주리반특 존자와 같은 분은 청소를 하다가 깨달음을 얻었고, 근세의 고승인 수월스님은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방편이 특별히 수승하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자기와 인연 있는 수행법을 찾아서 꾸준히 하다보면 뭔가 성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행이 잘 되지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되는 날 보다는 안 되는 날이 더 많습니다. 계속 졸리거나 오만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거나 마음이 산만하거나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지겹기도 하고, 이런 저런 생각과 감정에 끌려 다니다가 시간을 보내기 일쑤입니다. 왜 안 되는 것이지, 하고 고민할수록 점점 더 안 되고, 시간이 지났으면 뭔가 진척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후퇴한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이 수행이 내게 안 맞는 건가, 하는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선의 관문을 뚫다〉는 이러한 때에 참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수행자들이 바랑에 넣고 다니면서 참고한다는 이 책은 한번 보면 마음을 북돋아 수행에 더욱 힘쓰게 하고, 정신이 새롭게 초롱초롱해져서 더욱 기운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스무 해, 서른 해 동안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지 못했더라도 다른 방편을 찾지 마라. 기이한 인연에 이끌리지도 말고, 여러 가지 망념을 끊으며, 부지런히 힘써 오직 자기가 참구하는 화두를 바라보고 굳게 지키되,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기로 작정하면 3생이나 5생, 10생, 100생으로 이어진들 어떠랴. 철저히 깨닫지 못했다면 쉬지 마라. (67p)

이암 권 선사는 공부를 맹렬히 하고서 저녁이 되면 눈물을 흘리며, “오늘도 또 이렇게 헛되게 지나갔으니 내일 공부가 어찌 될지 알 수 없구나!” 하고 탄식하곤 했다. 선사는 대중과 함께 살면서 사람들과 말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114p)

수행은 이렇게 철저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1시간 해놓고, 난 왜 안 되지, 한한테 안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책은 나의 그런 안일함을 질책했습니다. 고작 1시간 해놓고 그러냐고, 30년을 공을 들여서 열심히 하면 언젠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로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불어넣어주었습니다. 안 되는 것은, 내게 맞지 않아서도 아니고,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선의 관문을 뚫다〉는 운서 주광 스님의 〈선관책진〉을 연관스님이 번역한 것입니다. 〈선관책진〉은 대장경과 조사들의 어록 중에서 요점을 추려 엮은 참선수행 지침서로 〈벽암록〉 〈임간록〉 〈임제록〉 등과 함께 종문칠서(宗門七書)라 하여 선수행의 입문제일서라 하였습니다. 처음 나온 이래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에서 수행자들의 필독서가 되어 왔습니다.

〈선관책진〉은 전집과 후집으로 나뉩니다. 전집은 다시 두 편으로 나누어, 앞의 제1문에는 황벽 희운, 조주 종심, 현사 사비, 야호 대의를 위시한 서른 아홉 조사의 법어를 간추려 실었고, 뒤의 제2문에는 여러 조사의 고행과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스물네 가지 사례를 들어 실었습니다. 후집은 참선하는 이가 어떻게 정진 수행할 것인지를 여러 경전이나 어록 가운데서 마흔 일곱 가지 항목을 가려 뽑아 실었습니다. 때로 평을 붙여 소홀하기 쉬운 뜻을 되짚어 주었습니다.

운서주광/ 호미/ 1만3천원

##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날

### 서울경인교구

지 회 장 : 김 은 숙  
수석부회장: 보 덕 제  
                  환 회 심  
총 무 : 이 인 성  
재 무 : 홍 순 화

### 부산경남교구

지 회 장 : 신 인 록  
총 무 : 정 남 선

### 대구경북교구

지 회 장 : 한 영 란  
총 무 : 임 연 옥

### 충청전라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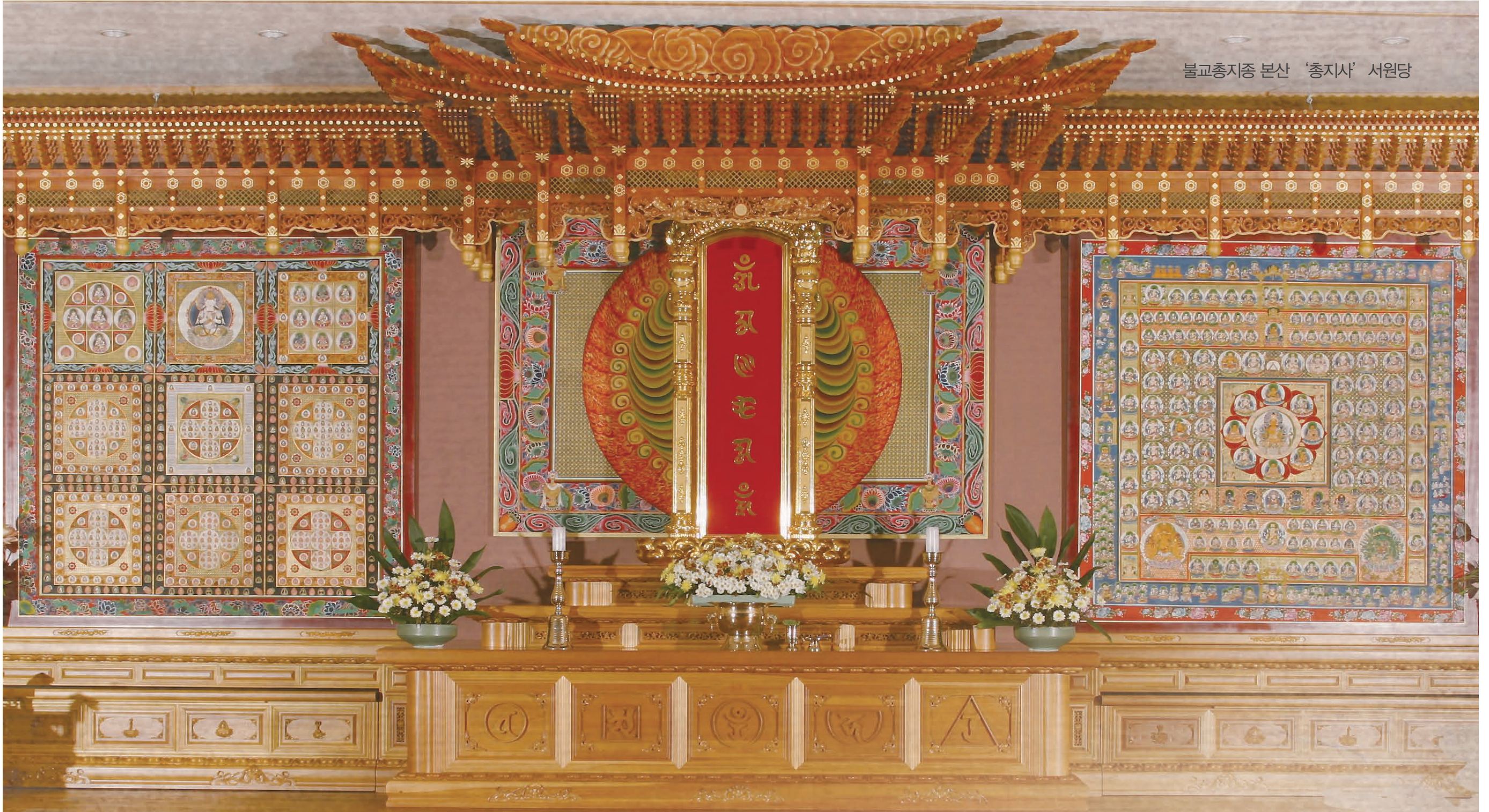
지 회 장 : 민 순 분  
총 무 : 이 민 자

각 사원  
신정회 회장과  
임원 일동



불교총지종 신정회 일동





불교충지종 본산 '충지사' 서원당



**불교충지종**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충지종.  
진언밀교 충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서원합니다.

**하반기 49일 불공**

5월 28일 ~ 7월 15일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불교충지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Tel: 02-552-1080~3 Fax: 02-552-1082 www.chongji.or.kr